

걱정 거으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하지말고, 용기있게

정서적 학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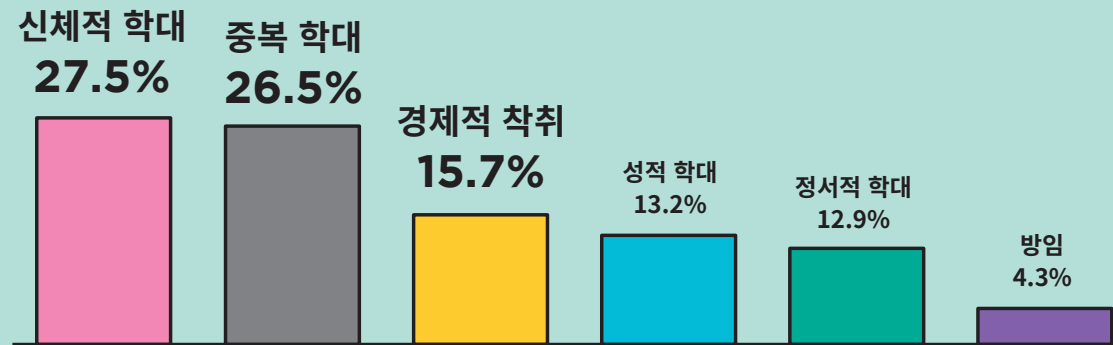


2022년 장애인학대 현황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2022년 장애인학대신고는 4,958건이었습니다.

장애인학대 유형



중복 학대는 2개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하는 것을 말함

피해자 특징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이예요.

10건 중 1건만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고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학대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장애인학대는 무엇인가요?

장애인을 괴롭혀서 몸과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때리거나 꼬집고, 벌을 서게 하거나,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공간에 가두는 등 몸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정서적 학대

욕설이나 왕따, 무시하기 등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성적 학대

원하지 않는데 얼굴, 가슴, 성기 등 몸을 만지고, 성적인 말을 함부로 하는 것, 성관계를 억지로 하는 것



경제적 착취

일을 시키고 돈을 조금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 겁을 주며 거짓말로 돈을 빼앗는 것, 도와주는 척하며 나를 속이고 돈이나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는 것



유기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 사회복지사, 활동지원사 등)이 장애인을 버리는 것



방임

장애인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의 건강·식사·위생·청소 등의 생활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정서적 학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 학대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장애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게 만드는 것인지 밖으로 표시가 나지 않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괴롭거나 두렵고 무서워도 그냥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못 하게 하고, 이것을 어기면 벌을 줍니다. 이 때, 학대를 한 사람은 자신이 한 행동이 왜 학대가 아닌지를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그럼, 정서적 학대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정서적 학대 사건 살펴보기

사건에 나오는 이름은 가짜 이름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지우

제 이름은 김지우입니다. 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제 머리에 끈 다발을 올리고 난 뒤 다른 동료에게 보여줬어요. 다른 동료들은 저를 보고 웃긴다고 웃었고, 저를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저는 이때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현철

서로 장난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도 장난 많이 치잖아.



석영

그렇지. 근데, 이건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놀리는 사람들은 재밌더라도 놀림당하는 사람이 창피하거나 속상해한다면, 그건 장난이 될 수 없어.

정서적 학대 사건 살펴보기

사건에 나오는 이름은 가짜 이름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김지우

그리고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을 웃겨야 한다며 제 눈을 스스로 찌르면서 우는 척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시켜서 해야 했어요.



- ↳ **현철** 아, 이건 너무하잖아!
- ↳ **석영** 맞아 그러면 안 되지!
왜 지우 씨는 사회복지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까?
- ↳ **주명** 선생님이 하라고 시키니까 그랬을 것 같아.
사회복지사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날 수도 있잖아



김지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너무 창피하고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속상해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평소에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퇴근을 안 시켜주고, 계속 혼냈어요. 저는 퇴근도 못 하고 혼 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 ↳ **현철** 무섭고, 속상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 ↳ **석영** 저도 너무 속상해요! 저라면 사회복지사에게 그만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하고, 나에게 왜 그러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정서적 학대 사건 살펴보기

사건에 나오는 이름은 가짜 이름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 창피했고,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평평 울었어요.
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퇴근을 못 하게 하고,
자꾸 혼을 내서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워서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어요.

나는 지우의 머리에 끈을
올려놓은 적이 없어요.
평소에 지우가 자주 보여주던
눈물 연기를 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웃자고
장난을 한 것일 뿐 학대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정서적 학대가 맞습니다.
법원에서도 사회복지사가 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했고,
사회복지사에게 벌금(죄를 지은 사람이 벌로 내는 돈)으로
700만 원을 내라고 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인 이유

- ① 지우 씨를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어 창피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 ② 사회복지사(선생님)가 평소에 지우 씨를 무섭게 했고, 지우 씨가 하고 싶지 않은 행동을 억지로 하게 했습니다.
- ③ 사회복지사(선생님)가 일부러 지우 씨를 놀리려고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우 씨가 창피함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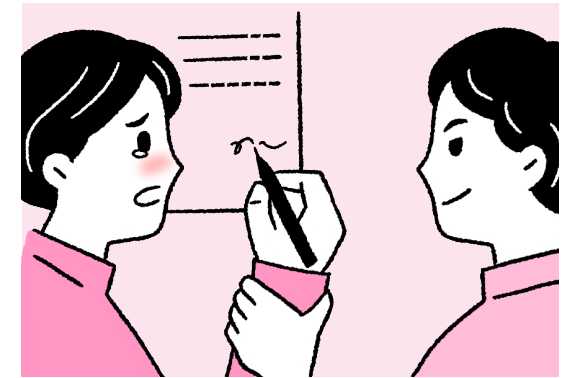
정서적 학대

욕설이나 왕따, 무시하기 등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괴롭히는 것

대표 행위



장애인에 대한 욕설, 거칠고 사납게 말하기(폭언), 소리치기 등



원하는 것을 못 하게 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는 것



겁을 주어 남에게 억지로 어떤 것을 하도록 하는 것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여 외톨이로 만드는 것(따돌림)

폭언, 따돌림 등 여러 가지 정서적 학대 행위는 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 다른 학대와 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서적 학대일까요?

1

장애인 거주시설의 직원이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친구 1명을 매일 주먹으로 때렸어요. 저는 맞지 않았지만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항상 맞는 것을 매일 보고 혼나지 않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겁을 주고 무섭게 만드는 것은 정서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현철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겁을 주고 무섭게 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2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는 제가 음식을 골라 먹고, 말을 잘 안 듣는다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짜증과 화를 냈어요. 그리고 자꾸 엄마한테 제가 잘못된 것을 이른다고 겁을 줬어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고 계속 거칠고 사납게 말하거나, 소리치기, 엄마한테 이른다고 협박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괴롭힐 땐,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3

제가 잘못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혼났어요. 혼나는 동안 무서웠고, 속상했어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내가 속상하고 무서웠다고 해서 모두 정서적 학대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혼이 났는지, 어떻게 혼났는지 등에 따라 정서적 학대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활동지원사가 “너는 나 아니면 활동 지원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말을 잘 들어야 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을 시켜도 활동 지원을 그만둘까 봐 활동지원사가 시키는 대로 한 적이 있어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활동지원사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며 협박했는지, 평소에 얼마나 자주 겁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정서적 학대일 수도,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인의 경험

나를 지원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예요. 저는 살면서 되게 작은 것부터 침해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그룹홈에 살았을 때, 선생님이 제 방을 예쁘게 꾸민다며 제가 정말 아끼던 물건을 버렸어요. 학대는 아닐 수 있지만, 뭐든지 사사건건 간섭을 받으니까 짜증도 나고 서러웠어요. 지금이라면 그건 인권침해라고 말할 거예요.

이것은 정서적 학대일까요?

5

저를 부를 때 자꾸 제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불렀어요.
그런데도 자꾸 별명으로 부르니까 신경 쓰이고 기분이 나빴어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나를 계속 놀리고, 기분을 나쁘게 한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정서적 학대 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주명

내가 싫어하는 별명으로 부르는 것은 학대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땐 ‘하지 말라’, ‘싫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6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강사님이 수업시간마다 분위기를 재밌게 한다며 발달장애인 한 분을 지목해서 그분의 말투나 단어를 자주 따라 하고 놀렸어요. 놀림을 당한 분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본인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장애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비하하거나 놀리는 것은 장애인을 모욕하는 것이고, 정서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괴롭힐 땐,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7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제가 장애인이라고 청소랑 복사만 하라고 해요. 저는 사무보조로 취업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거든요. 팀장님이 계속 ‘장애인’, ‘장애인’ 하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정서적 학대일까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원래 하기로 했던 일과 다른 일을 계속 주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 계속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서적 학대일 수 있습니다.



현철

인권침해에도 해당해요!



주명의 경험

- 주명 제가 다니던 보호작업장에서 하루치 일을 다하지 못했다고 집에 보내주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어요. 일을 다해야 보내준다고 해서 밤까지 남아있었어요.
- 현주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도 야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뭐가 다른가요?
- 주명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과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제가 못한다는 이유로 남아서 하는 것이 달라요.

⊕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나를 괴롭힐 땐,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해봐야 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이런 일 때문인지 확인해봅시다!

불편한 마음이란?

뭔가 말하기 어렵지만 이상하거나, 찝찝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신경이 쓰이는 마음입니다.

이런 일

- 무시했을 때 • 욕을 할 때
- 물건을 던지거나, 던지려고 해서 겁을 줄 때
- 장애가 있다고 놀릴 때 • 따돌릴 때
-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할 때
- 사는 곳 등 나에 대한 것을 정하는데, 내 의견을 빼고 결정할 때
- 겁을 줄 때 • 괴롭힐 때
- 큰소리를 내거나 고함을 칠 때
- 하고 싶은 것을 못 하게 할 때



이런 일로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석영의 경험

제가 분리수거를 하러 갔는데 경비아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뭔가 억울하고 속상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이 일을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와 이야기하고, 같이 확인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은 학대나 인권침해일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해요!

생각해 봅시다

Q 마음이 불편하고, 신경이 쓰이고, 속상하고, 걱정된다면 나는 누구와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주명

저는 자꾸 신경 쓰이고,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봐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도 해요.



석영

다른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제가 학대를 당한 것이 맞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현철

제가 믿는 사람은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동료들이에요. 어려운 일을 도와주고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어서요.



승준

저는 어릴 때부터 믿을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민을 이야기해 봐도 해결할 수 없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동료지원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의 직원 등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누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장애인학대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신고자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1644-8295로 연락해서 알려주세요.



용기를 내어 주세요!

가만히 있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야 괴롭힘을 멈출 수 있어요. 혼자 해결하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도 돼요. 주변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찰, 조력인, 가족 등에게 알려주면 같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용기를 내어 주세요.

- 1 1644-8295(장애인권익옹호기관)로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전화를 받으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들어요. 그리고 들었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와드려요.
- 2 112(경찰)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요.
- 3 시설에서 살고 있다면 인권지킴이단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 4 전화를 하기 어려우면,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돼요.
- 5 혼자서 말하는 것이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하는 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학대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도움을 드립니다.

학대받은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에게 꼭 맞는 지원을 하고
다시 학대를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장애인학대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며
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합니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가 하는 일

피플퍼스트서울센터는 당사자 7명이 일하는
발달장애인 자기옹호단체이며, 장애인자립지원센터입니다.

누군가와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신나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고 싶을 때,
저희 센터의 문을 똑! 똑! 하고 두드려주세요.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소

기관명	주소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서울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 강남구 도곡로 416, 서울시립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6층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 연제구 법원로16번길 10, 금복빌딩 6층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구 동구 동부로22길 2, 서한코보스카운티 403호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 르네상스빌딩 1801호
광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광주 서구 상무대로 719, 나라빌딩 2층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대전 동구 계족로 499, 루루빌딩 3층
울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 남구 중앙로 311, 연세H타워 2층
세종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세종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121호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리센터 208호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 양주시 삼송동 640-18, 306호
강원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 춘천시 퇴계로 199, 경림빌딩 2층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63번길, 라데팡스타워 303호
충북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북 충주시 갯고개로 166, 3층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56, 천안법조플라자 301호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11-10, 경희궁빌딩 5층
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남 목포시 영산로 633, 힐링타워 2층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4-5
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5, 리제스타워 210호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주 제주시 청귤로5길 21, 1층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 전화 ✉ 문자 🗨 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만든 곳 보건복지부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발행인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함께 만든 사람 김현정 · 김혜미 · 문석영 · 박현철 · 신지형 · 이현주 · 최주명

경험을 나누는 사람 김대범 · 김현아 · 박경인 · 박종경 · 소형민 · 이솔 · 이승준 · 최혜린

발행일 2023년 10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1, 코오롱디지털타워 1412호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누리집 www.naapd.or.kr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메가벤처타워 601호

전화 02)2068-3554 팩스 02)6280-3542 누리집 www.peoplefirstsc.or.kr

QR코드



↑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자료집과 영상을 볼 수 있어요.